

# 재즈·국악·창극...한여름 '음악 성찬'

광주예술의전당 8월 상설공연  
매주 목~일요일 광주공연마루  
클래식 등 장르 다채...전 좌석 무료

재즈와 국악, 창극과 오페라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상설공연'은 다양한 공연들의 한상차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장르가 다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8월 '광주상설공연'을 통해 이채로운 음악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일요일(오후 5시)마다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상설공연'과 '목요상설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다음 달 3일 광주·대구의 '달빛동맹' 기획공연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하이라이트'가 막을 연다. '라 트라비아타'는 알렉산드르 뒤마 작 '동백꽃 아가씨'의 모티브가 됐으며, '라 보엠'은 앙리 뒤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을 각색한 것으로도 알려진 작품이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에 관객들의 기대가 모인다.

이어 10일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재즈와 함께하는 동요'도 감상할 수 있다. '산.새.숲.의 노래' 등은 천진난만한 동심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1일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의 '지금 이 순간'이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여기에 NS재즈밴드가 음색을 더한다.

한편 '국악상설공연'도 눈길을 끈다. 국악상설 첫 공연은 4월 시립창극단이 청명한 돌과 맑은 여울을 찬미하는 '백석정란(白石靑澗)'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과 '심청가'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시립창극단의 '고진감래(苦盡甘來)'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민적 해학성이 돋보이는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매품 팔러가는 대목 등'을 5일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흰 달과 푸른 바람의 자연을 담은 '월백풍청(月白風淸)'이라는 주제는 19일 '이매방류 승무', '한량무' 등에 담인다. 이외에도 시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민간



이번 무대에 오를 예정인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예술단체 예약의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공모 선정작 '조선훈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이 펼치는 '8월의 상설' 시리즈도 4차례(11-12일, 25-26일)에 걸쳐 관객들을 만나며, 관현악

합주곡부터 플롯 협주곡, 장세남 협주곡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전 좌석 무료. 자세한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및 광주예전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전문 음악인에 배우는 클래식 연주

ACC재단, 29일 '시민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국내외 유명 예술인을 초청해 악기 연주 강의를 진행하는 '2023 ACC 시민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가 오는 29일(오전 10시) 열린다.

이번 마스터클래스에는 안드레아스 크로이처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 교수와 이철호 KBS 교향악단 단원이 강연을 한다.

두 강사는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직접 악기 연주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지역 생활예술 음악인들이 ACC에서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민 참여 공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30여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연습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오는 10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연습 결과를 선보이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를



이철호 KBS 단원 안드레아스 교수

통해 지역 생활예술 음악인들의 연주 역량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을 매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관광 분야 산학연계 이론·실무 교육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이달까지 기업·개인 모집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영우, 이하 관광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23 광주관광직무역량(JIT) 아카데미 및 인턴십'에 참가할 기업 및 개인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산학연계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인턴십을 병행하며 CS 역량강화, 비즈니스 매너, 로컬비즈니스 트렌드 및 관광 창업 선진지 답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기업 참가자는 공고일 기준 관광센터 입주기업 또는 창업 1년 이상인 기업 및 관내 관광기업(관

장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허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턴십 지원자는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 및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50개 내외의 관광기업에서 인턴십 참가자(50명)를 선발해 2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특적으로 인턴십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기업에는 2023년 광주관광일자리 박람회 부스를 지원한다.

선착순 모집.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産 '이력' 대구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2년 광주영화제작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단편영화 '이력'(감독 이승준)이 24회 대구단편영화제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영화는 무인계산기로 계산을 해야만 하는 기성세대와 이로 인해 일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현 세대를 표상하며 자동화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고층과 사회적 변화를 그렸다.

광주 출신인 이승준 감독은 지난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단편부문에 선정되며 '도움 달기'를 연출했으며, 2019년에는 '세상을 구한 여자'를 통해 충주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정준 원장은 "광주 출신의 젊은 신예 감독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런 행보들이 앞으로의 광주 영화



'이력'

산업에 큰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영화 지원사업들을 통해 광주의 영화감독들이 추진력을 얻어 세계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미래 예술가' 모여라

예총 '전국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내일까지 모집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임원식, 이하 광주예총)는 '2023 제3회 전국 청소년예술제' 참가자를 오는 28일(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예선은 다음 달 4일 동영상으로 진행하며 총 20팀을 선발해 본선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본선 및 시상식은 31일(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

장에서 진행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방영.

이번 예술제는 여향 광주의 미래가 될 예술가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연은 국악, 연예, 음악, 연극, 무용 등 5개 부문에서 펼쳐진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대학생, 초·중·고

교생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 내역은 광주시장상부터 교육감상, 의장상, 광주예총 회장상 등이며 상금 규모는 총 2800만 원에 달한다.

광주예총 임원식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예술의 꿈을 담아내는 무대가 사라졌다"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창의적 예술가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꿈을 향해 다가서는 교두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수방법은 참가신청서와 영상물을 이메일로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총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